

#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외면...현장은 '질주'

###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4년째...대다수 차량 미준수 광주·전남경찰청, 등·하교 현장 단속·안전지도 실시

봄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운전자 인식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오전 8시, 광주 동구 산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빨간색 노면 위 '어린이보호구역 30' 표시가 선명했지만 차량들은 속도만 다소 줄인 채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횡관 조끼를 입은 학교지킴이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관계자가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으나 완전히 멈춰 서는 차량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멘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 앞에서 서 있어도 승용차는 멈춤 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아이는 차가 지나간 뒤에야 길을 건넜다. 산수동 주민 김모씨(79)는 "30km 이하로 서행한다고 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제대로 지키는 차는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서구 화정남초등학교 후문 앞 상행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과 달리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후문 쪽 횡단보도를 수 분간 지켜본 결과, 일시정지하는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일부



5일 오전 8시 광주 동구 산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차량은 감속 없이 통과했고, 교통안전 지킴이가 깃발을 들자 그제야 몇몇 차량이 급히 멈춰 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벌칙금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일부 운전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운전자 이모씨(36)는 "제한속도 30km와 우회전 일시정지는 알고 있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건 처음 들었다"며 "뒤틀린 경적을 울리거나 추돌할까 봐 쉽게 멈추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서행'과 '일시정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며 "안전히 멈춰 서는 일시정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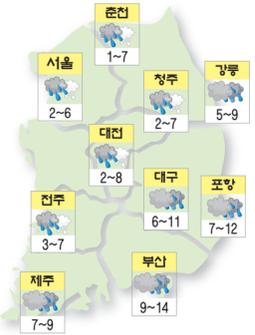
광주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이날부터 4월17일까지 등·하교길 시간대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현장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도 6월 30일까지 관련 단속을 이어간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03건(광주 56건·전남 4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06명이 다쳤다.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숫자는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맑음 06:56 달맞이 21:26  
☁️ 맑음 18:32 달림 08:03



광주	☁️	3~9
목포	☁️	3~7
여수	☁️	6~10
순천	☁️	4~10
구례	☁️	3~10
광주	☁️	3~8
진도	☁️	4~10
진남	☁️	2~7
진도	☁️	4~10
진도	☁️	3~7

목포	밀물(고)	03:57 / 16:13
	썰물(저)	09:07 / 21:23
여수	밀물(고)	10:51 / 23:11
	썰물(저)	04:37 / 16:47

## 얼굴사진 '딥페이크' 원천 차단 기술 개발

### 전남대 인공지능융합학과 유석봉 교수 연구팀

전남대학교 연구진이 얼굴사진 합성을 어렵게 만드는 인공지능(AI) 기반 보호 기술을 개발했다.

전남대 인공지능융합학과 유석봉 교수 연구팀은 사용자의 얼굴 정보를 사전에 가공해 딥페이크 제작을 방해하는 '딥프로텍트(DeepProtect)'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술은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에 보호 처리를 거치면, 타인이 해당 이미지를 활용해 얼굴을 합성하더라도 결과 영상이 자연스럽게 구현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게임을 넘어 일반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산되며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무단 얼굴 도용이나 디지털 성범죄, 사기, 허위 콘텐츠

제작 등 사회적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요구돼 왔다.

그동안 관련 기술은 이미 생성된 가짜 영상을 가려내는 탐지 방식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이번 연구는 애초에 합성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예방 중심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대 인공지능융합학과 시각지능미디어연구실 소속 백승혁·이은기 석사과정생이 공동 1저자로 참여했으며, 유석봉 교수와 김형일 교수가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컴퓨터 비전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CVPR 2026에 채택돼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 동부소방, 전술훈련 평가. 광주 동부소방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진행했다.

## 제3차 제조사서 희생자 추정 유해 발견

### 12·29 제주항공 참사 현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전해질 제3차 제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

5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항공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3차 여객기 참사 사고 기 전해물 조사를 진행했다.

대형 자루에 담긴 잔해물을 선별하던 중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3.5cm 물체 1점이 새로 발견됐다.

발견된 물체는 DNA 검출 및 정밀 감정을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졌다. 인공로 최종 확인될 경

우 기존 희생자 DNA와 대조해 유가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희생자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화장품, 곱빼용품 등 다수와 휴대폰 2점도 발견됐다. 지난달 26일 이뤄진 사고기 전해물 제2차 제조사 과정에서도 참사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25cm 크기 유해 1점을 찾아냈다.

최근 국과수 감정 결과 발견된 유해의 DNA는 참사 희생자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날 오후 국과수 감정 분석 결과와 유해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유가족협의회는 사고기 전해에 대한 정밀 제조사와 철저한 수습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전해 분류와 감식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신용카드 무단결제' 사건 경찰 수사 확대

### 여수·순천 1억2000만원 등 전국 피해액 3억원 규모 PG사 시스템 침해 정황...전문 해킹 조직 개입 의심

전남경찰청이 최근 여수·순천에서 집중 발생한 신용카드 무단 결제 사건을 고도화된 방식의 해킹 범죄로 판단. 용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여수경찰청 순천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지난 1~2월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구마하지도 않은 물품이 새벽 시간 결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무단 결제된 건 김강기식품을 비롯해 안마의자, 냉장고, 각종 전자제품 등 고가 상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 피해자는 6차례에 걸쳐 1300만원이 결제됐고, 또 다른 피해자는 300만원 결제가 한도 초과로 거절되자 200만원으로 나눠 재결제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여수·순천에서 14건으로, 피해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도권 등 타 지역 동일 수법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30여건, 3억원 가량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는 카드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해 승인을 취소하면서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

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해외 건강식품 구매 등을 위해 물품 구매 대행업자 A씨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정보를 파일 형태로 저장·관리하던 중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범은 탈취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결제한 뒤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PG) 시스템 일부도 침해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정교하고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문 해킹 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여친 SNS 팔로우하면 폭행

만년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SNS 팔로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남성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을, B씨(22)에게 징역 3개월을 판결.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 오전 4시30분께 전남 나주시 한 호수공원에서 피해자(21)를 부르 뒤 폭행·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SNS 팔로우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코뼈 등이 골절되는 등 3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응수받지 못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 'RE100 메가스테이션' 5월 완공

## 생산·거래·정산 한곳에...재생에너지 플랫폼 '첫 발'

### 서석동에 44억 투입...에너지 자립형 건물 설계 전력거래 실증 착수...2045 탄소중립 거점 기대

광주 구도심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거래, 정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거래소'가 들어선다. 이 시설이 준공 되면 광주는 재생에너지 직거래와 탄소 배출권 사업을 아우르는 '에너지 거래 플랫폼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서석동 24-2 일원에 조성 중인 'RE100 메가

스테이션'이 오는 5월 완공된다. 이 시설은 호남권 RE100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거래하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된다.

RE100 메가스테이션은 대지면적 1247㎡, 연면적 554㎡, 지상 3층 규모다. 광주시, 동구, 광주도시공사와 ㈜레플러스 등 민·관이 협력해 총 44억원(국



RE100 메가스테이션 조감도. 제공=㈜레플러스

비 11억6000여만원·시비 19억여만원·민자 13억2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RE100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 개념과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구

축 서비스(MEGA)를 결합한 곳이다.

시와 동구는 RE100 메가스테이션을 통해 발전사업자와 RE100 수요기업(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거래·정산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발전소 구축 지원, RE100 참여 희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전력거래소 대관 업무까지 수행하며 지역 기업의 RE100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모니터링과 사업화, 분산에너지 통합플랫폼 운영 등 에너지 특화 서비스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광주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축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해 탄소배출권 확보·판매와 에너지 효율화도 꾀한다.

동구는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하반기부터 RE100 수요기업과의 전력거래 실증에 착수해 본격적인 플랫폼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물 자체도 '에너지 자립형'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1등급, 녹색건축 그린 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기준을 충족한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직접 생산·소비한다.

1층에는 주차장(일반 27대·장애인 1대)과 카페가 들어오고, 2층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서비스 거점센터와 통합관리센터, 3층에는 사무공간과 야외 테라스가 조성된다.

동구 관계자는 "광주지역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화를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과 연계해 메가스테이션을 거점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2022~2024년 동구 총장동·동명동·서남동 일대에 총 28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공공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폴 등을 구축하며 도시 에너지 전환 기반을 확충해 왔다.

송태영 기자 sty1235@